

‘오승윤 :  
풍수의 색, 생명의 선율’  
내년 1월18일까지 ACC복합전시관  
시기별 대표작 30점·관화 7점 전시



‘흰 꽃’



‘물고기’

## 자연의 숨빛 닮은 ‘오방색’ 인간세계 물들이다



‘오승윤: 풍수의 색, 생명의 선율’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6관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열린다.

기존에 봐왔던 무등산은 없다. 화면 속 무등산은 신비로움과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산의 형태는 단순화돼 있고, 다양한 생명체는 경계 없이 어우러져 있다. 화면을 유영하듯 움직이는 새와 물고기, 사슴, 꽃 등은 ‘따로 또 같이’ 오묘한 질서 속에 편입돼 있다.

오승윤 화백(1939~2006)의 ‘풍수 무등산’은 보는 이에게 영감을 준다. “아 무등산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경이로움을 갖게 한다.

작가가 구현한 무등산에서 소외된 생명체는 없다. 대립과 반복도 없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존중받으며, 무등산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어준다. 청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황색 등 오방색이 발현하는 한국적 색채와 미감은 보는 이의 감성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한국 구상회화를 대표하는 오승윤 화백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ACC(전당장 김상욱)에서 개막해 내년 1월 18일까지 복합전시6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 주제는 ‘오승윤: 풍수의 색, 생명의 선율.’

전시실에는 오작가의 주요 시기별 대표작 30점을 비롯해 판화 7점 등 총 37점이 걸려 있다. 2점의 구상 회화를 시작으로 지난 1996년 모나코 국제현대미술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던 ‘회상’ 등이 관객을 맞는다.

오작가는 한국의 인상주의화가 오지호 화백의 둘째 아들이다. 개성에서 태어나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그는 독창적인 색채, 화면 구성으로 한국

회화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우리 것,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다. 한국적인 풍경을 화폭에 투영하려 했던 고심의 흔적과 깊은 사유가 읽힌다.

“예술은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작품의 영원한 명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이며 평화이다. 풍수 사상은 우리 민족의 자연관이며 삶의 철학이요 신학이다.”

작업노트에 적힌 글은 그가 지향했던 예술 세계가 집약돼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가장 자신다운 것’이었으며 ‘가장 자연적인 것’이었다.

오방색은 강렬한 색감으로 자칫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오 화백의 오방색은 정겹고 따스하며 친근하다. 오랜 사유와 정진이 투영됐다는 방증으로,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전해온다.

생전의 그는 “오방색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위대한 색채 문화이며 영혼이다”며 “단청은 자연의 법칙인 음양의 화합이며 하늘이 내린 색채이다”고 했다.

1996년 모나코 국제현대미술전 수상작 ‘회상’은 중심에 여성을 초점화한 작품이다. 화면을 채운 학, 오리, 거북이, 해, 달 등은 상징적 메시지로 연계된다. 한국적 여성이 내재하는 지혜와 생명, 자연으로 대변되는 질서와 조화 등 평소 ‘예술을 통해 자연과 인간은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작가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다.

‘대한’이라는 작품은 오방색으로 대변되는 작가의 화풍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70년대 초반 작품으로 추운 겨울 얼음낚시를 하는 노인을 형상화한 것. 오늘날과는 다른 추위 강도를 푸른 그림자로 표현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오방색 그림을 그리기까지 작가의 화풍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밖에 전시실에서는 물결마저도 신비로운 ‘물고기’, 제5회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바람과 물의 역사’도 만날 수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의 삶과 자연의 본질을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킨 오승윤 화백의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며 “각각의 그림이 주는 감성적 메시지를 저마다 해석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옥주현·아이비·민경아... 뮤지컬 ‘레드북’으로 광주 무대 선다

12~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옥주현, 민경아, 아이비... 뮤지컬 무대에서 가장 뜨거운 존재감을 보여온 세 배우가 이번엔 빅토리아 시대를 살아가는 당찬 여성 ‘안나’로 변신해 광주 관객을 만난다.

19세기를 배경으로 여성의 자아 찾기를 그린 뮤지컬 ‘레드북’이 오는 12~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전당의 포시즌 기획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작품은 당당한 캐릭터와 유쾌한 서사로 초연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창작 뮤지컬이다.

신사의 나라 영국,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가장 엄격했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약혼자에게 첫 경험을 고백했다가 파혼을 당한 안나는 도시로 건너와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그러던 중 수상한 신사 브라운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는 잡지 ‘레드북’으로 실리며 거센 비난과 위협에 마주하게 된다. 자유롭고 당찬 여성의 목소리, 상대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두 사람의 감정이 유머와 따뜻함을 더해 전개된다.

작품은 뛰어난 완성도로 주목받으며 제3·6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연출상·안무상·음악상·여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을 잇달아 수상했다. 시대극의 외형을 두고 있지만 여성의 주체성과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전해 관객층을 넓혀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숙녀보다는 ‘나’로 살고 싶은 주인공 안나 역에는 옥주현·아이비·민경아가 이름을 올렸다. 사랑도 연애도 책으로만 배운 신사 브라운 역에는 송원근·지현우·김성식이 출연해 서로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여기에 조풍래, 한세라 등 실력과 배우들이 합류해 극의 완성도를 더한다.

무대 구성 역시 새롭게 다듬어졌다. 질감이 살아 있는 영상과 조명, 세밀한 무대 세트가 결합해 19세기 런던의 분위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버무린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완성도 높은 연출과 음악이 어우러져 작품이 가진 메시지가 더욱 깊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VIP 14만 원·R 12만 원·S 10만 원·A 8만 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케팅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옥주현



아이비



민경아

##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 제1회 작가상에 탁인석 수필가 수상

탁인석(사진) 수필가가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 (이사장 오덕렬)가 수여하는 제1회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 “그의 ‘허구 허용’의 수필관은 수필의 창작적 진화의 방향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면서 “아울러 ‘예술광주’ 편집주간, (사)스텔라포에마 토요시낭송회 이사장, 광주문인협회 이사장, 인문학 학술대회 좌장 등의 직책을 수행한 것은 그가 소재의 핵심을 꿰뚫는 안목이 투철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광주문협 이사장인 탁 수필가는 “이제부터라도 나의 부족한 역량을 인정하고, 더 좋은 수필에 정진해보고자 한다”며 “수필문학 작가



로서의 공식적 인정을 받은 셈이 됐다. 문학 발전에 체력을 가해주는 셈이 됐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탁 수필가는 광주·전남·한국문협회 회원과 광주 대영어과 초대학과장, 문하수도포럼 상임대표, 국제펜문학 광주본부 운영위원장, (사)한중문화교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문학이라는 마법으로’와 ‘별빛 찾아가는 낙타들’을 펴냈다.

한편 시상식은 12일 낮 12시 30분 ‘남도한식 뷔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